

/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

“남북평화시대 동북아 경제권 선점”

기관·단체 등 300여명 참석
동북아 경제 전진기지 노력
내년 상반기 기념재단 설립
유공자 선정 23명 표창 수상

강원경제계가 평창올림픽 이후 성장 여건대로 ‘평화’를 세웠다.

도내 33개 경제단체가 모인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최돈진·이하 강경연)는 6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대회 주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우리가 주역입니다’로 지역경제에 최대 걸림돌인 남북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길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최돈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실현한 저력을 바탕으로 강원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전진기지로 우뚝서



◇출범 2주년을 맞은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최돈진)는 6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우리가 주역입니다’를 주제로 2018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최문순 지사는 환영 만찬장에서 “경제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포스트 올림픽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내년 상반기 기념재단을 설립해 올림픽 후속 사업을 이어가고 통일경제특구를 따라 경제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오인철 대한건설

협회 도회장, 천세복 도관광협회장,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한금석 도의장, 정만호 도경제부지사, 한왕기 평창군수, 장문혁 평창군의회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노재수 도개발공사 사장, 허영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황환민 강원지방조달청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회식 후에는 송성수 삼성전자

부장의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인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방안’ 특강이 진행됐다.

또 경제단체 활성화 등에 기여한 김영수 강원건설 대표를 비롯한 23명이 중소기업유공자로 선정돼 도지사, 도의장,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평창=신하림기자 peace@

※표창 수상자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릉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비, 자재노무비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남북평화시대 강원기업 성장 기회 선점하자”

강원경제인한마음 대회 성황
경제단체장·기업인 300명 참석
23명 유공포상 경제인 사기 진작

강원경제인들의 한자리에 모이는 2018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가 평창에서 열렸다. 강원도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최돈진)는 6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8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김창균 평창부군수, 허영희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 황환민 강원조달청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정병훈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등 도내 경제단체장과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도내 경제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평화시대, 강원도 기업의 성장 기회와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관심



2018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가 6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도내 경제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현태

을 드러냈다. 흥현의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동북아 평화번영과 강원도 기업의 기회' 주제 발표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신북방정책으로 러시아극동지역과 연계한 강원기업의 성장기회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흥 실장은 "남북관계개선 지속시 러시아 PNG노선이 삼척까지 들어설 수 있

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 건설비용 절감효과와 도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이 줄어드는 등 도내 산업계의 새로운 시장이 도출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도 특산품 및 전통주, 여성핸드메이드 제품의 전시판매와 더불어 강원도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23명의 유공자 포상도 진행되는 등 강

원경제인들의 사기도 진작됐다. 최돈진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강원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이 성장기회를 발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는 자리였다"며 "강원도 경제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기관장들의 후원도 뒤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태 신관호 ▶수상자명단 kado.net